

베르호프스타트 벨기에 총리를 위한 만찬사

존경하는 베르호프스타트 총리 각하,

그리고 귀빈 여러분,

각하와 일행 여러분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된 각하의 아시아 4개국 순방이 매우 유익한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벨기에는 우리의 오랜 우방입니다. 6·25전쟁 당시에는 3,500명이 참전하여 수많은 젊은이들이 고귀한 생명을 바쳤습니다. 외환위기 때에도 유럽 국가 중 가장 먼저 투자사절단을 보내 주었습니다. 우리는 벨기에 국민의 숭고한 헌신과 성원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 각하,

벨기제가 지금까지 이룩해 온 성취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점이 많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유럽통합에 앞장서 온 벨기에의 적극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합니다. 2001년 의장국으로서 EU 헌법조약 교섭의 기초가 된 '레켄 선언'을 주도했

고, 이제는 명실상부한 유럽의 정치적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국민소득 3만 4천 달러의 선진경제를 일으킨 벨기에의 저력도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물류기반과 투자환경, 인적자원 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작은 영토와 부족한 자원을 기술과 두뇌로 극복한 좋은 모델입니다.

우리는 이와 함께 벨기에의 국민통합 노력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습니다. 다양한 언어와 민족 사이의 갈등을 수준 높은 정치력으로 풀어 냈고, 이것이 '작지만 강한 나라'를 만드는 또 하나의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벨기에의 이러한 노력은 우리의 국가전략과 대부분 일치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을 통한 선진한국 건설, 사회갈등 해소,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각하와의 정상회담은 매우 유익했습니다.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실질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 7월 체결된 사회보장협정에 이어 오늘 개정 에 합의한 투자보장협정이 그 토대가 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총리 각하의 건승과 벨기에의 무궁한 번영, 그리고 양국 국민의 우정을 위해 축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